

다른 세상 다른 경제

지역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2013년 3월
다른경제포럼

다른 세상 다른 경제

지역사회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외로웠던 진보정당의 협동조합 활동가들

2010년 11월 3일, 진보신당 내 협동조합 활동가들의 모인 것은 ‘외로움’ 때문이었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에게 외로움이라니! 그것은 지역주민이란 이름의 협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필요와 염원 말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필요와 염원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당’이었으며, 추상적으로는 ‘정치’였고, 지향으로는 ‘자본주의의 극복’과 ‘사회변혁’이었다. 우리는 당으로부터 외로웠으며 협동조합 현장으로부터 외로웠다.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니었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변혁을 일구어간다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협동조합 현장에서 무기력하기 일쑤였다. 우리가 조합원을 만나 그들과 협동하고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모든 활동이 넓은 의미의 정치일 수 있으며, 근본적 정치일 수 있다고 여겼다. 그것을 ‘생활정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은 소극적인 ‘중립’을 지키기도 벅찼다. 그렇게 협동조합 현장으로부터 외로웠다. 당의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도조차 되지 못한 ‘진보의 재구성’은 소모적인 세력재편 논의에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대부분의 당

원이 그랬듯이 우리들 역시 지쳐갔다. 우리의 당이 늘상 편을 들고자 했던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으로부터도 어떤 조직적 연대와 지원을 경험할 수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협동조합 활동가 당원 그 스스로 먼저 손을 내밀고 참여하고 주장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 역시 협동조합운동이 노동자결사체운동임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활동가이면서 진보정당 당원이란, 새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아니라, 새처럼 날 수도 있으며 쥐처럼 달릴 수도 있는 존재여야 했다.

우리는 이 투박한 팜플렛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외로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른세상을 꿈꾸며 다른세상의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치고, 지붕을 얹어가길 기대한다. 우리는 앞으로 노동, 정치, 지역사회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식량, 주택, 교육, 의료, 문화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우리의 살림살이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려 한다. 그 과정에 또 노동자, 농민, 실업자, 빈민, 서민, 주민이라는 이름을 갖는 주체들을 초대하고 만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년 3월

김성훈(대표), 조세훈(간사), 강수환, 김기수, 김신양, 목영대, 선창규, 안병일, 이명희, 이재기, 주종섭

『사회위기 · 생명위기 시대, 대안은 있는가?』

자본주의 300년, 신자유주의 30년, 자본주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만을 위한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1:99 사회라는 부의 불평등과 사회양극화, 사회적배제와 차별이라는 이름의 사회적 위기가 극심해진 시대를 살고 있다. 한편, 이기적 개인주의를 발전 동력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기후변화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라는 생명의 위기를 불러 왔다.

자본주의 모순, 그 야만성과 폭력성, 지속불가능성은 그 체제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순을 이 사회에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으로 극복의 주체를 대중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동운동, 시민운동을 대중적 기반으로 하여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결집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저항의 결집을 통한 정치혁명’ 노선이다. 자본주의가 극복된 새로운 세상의 실질적 내용은 오로지 정치권력 획득 이후의 일로 유예한다.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른바 지금껏 우리가 실험한 ‘정통노선’이다.

이 노선은 새롭거나 낯선 것이 아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 노선을 입증했다. 그러나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는 자본주의 모순에 뒤지지 않는 모순을 드러낸 채 몰락했다. 깃발아래 모였던 사람들은 떠났고, 대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깃

발아래 모인 사람들이 있었고, 새롭게 모이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력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을 틈타 거칠 것이 없어진 자본주의가 더 형편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로인해 삶의 고통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대안의 방향 – 저항과 건설의 만남』

자본주의 시장사회, 임금노동사회는 새로운 세상을 말하던 사람들과 조직을 압도했고 그 저항세력을 무력화시켜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극복을 말하지 않게 되거나, 말하더라도 자기의 생활, 그 살림살이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에 포섭되어 그 시스템을 유지, 지지하는 것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면서 혐오스런 자본주의에 이따금 치를 떨지만 어쩔 수 없다는 숙명론과 패배감에 좌절하고 있다.

전세계적 현상이었던 시장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는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며 민(民)과 민의 살림살이 공동체인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것에 저항해 온 노동운동, 시민운동은 자본이 주인노릇하는 시장과 싸우고 국가와 싸우면서 정작 그 근원인 사회를 새롭게 건설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의 극복은 오로지 자본주의 속에서 그 대안의 영역을 건설하고 창조함을 통해서만 시작될 수 있

다. 가라타니 고진이 표현한 것처럼 비록 자본주의속에서 자라지만 자본주의를 숙주로 자라 그것을 쓰러뜨리는 이른바 대항의 대안세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본주의 극복의 주체형성에 있어 저항의 노동운동과 건설의 협동조합운동이 노동자결사체운동의 전통위에 다시 만나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운동, 시민운동이 대중조직운동의 비옥한 토양이 되고 이를 자양분으로 새로운 정치변혁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은 오래된 미래로서 지역사회라고 제안한다.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다.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둘러싼 현상에 대한 진단』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봉착한 문제는 실천의 부재가 아닌 과잉실천과 사상의 결핍이라는 불균형에 있다. 지금 한국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지런한 현장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활동이며, 파편화된 조직의 강화가 아니라 통합적 전망을 가진 네트워크간의 협동의 강화이다. 이와 동시에 이론진영에서는 저항을 자처하면서도 숙명론에 젖어 있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상적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신양, 2009)

우리가 ‘사회적경제’가 아닌 ‘다른경제’라는 생소한 이름을 꺼내 든 까닭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사

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적 현실태로서 시장사회와 임금노동사회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아우르는 대안모색이라는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국한하여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의 본래적 의미와 역사적 전통을 살펴보면, 그 자체로 노동운동가, 진보좌파정당 활동가라는 의미까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이 사회적경제를 ‘시장도 국가도 아닌’ 제 3의 영역으로 두며 시장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분리하여 체제와 시스템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편향과 더불어 경제 및 경영계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경제’를 강조하며, 결사체로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체로만 고려하여 경제적지표로 사회적경제의 성공을 평가하려 한다. 이럴 경우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과는 다른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위한 ‘착한’ 기업일 뿐이며, 그들의 운명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는 족쇄를 씌우게 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운동이 민민의 자발적 결속과 연대, 협동의 힘을 모아 새로운 사회 건설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가주도하에 시장경쟁원리에 포섭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는 “제도와 시장 사이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 결국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적경제는 시장사회에 대항한 대안경제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제도에 기대어 시장으로 들어감으로써 국가에 포섭되고 시장에 목숨을 맡긴 불행한 운명의 배를 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시장경제의 한 부분이라거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계토경제로 호도하고

편하하는 이론이나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경제를 잘못 이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처사이다. 사회적경제는 결사체의 이념과 조직이다. 선구자들의 실험은 공동체를 통해 상호 협동하고 돕는 사회를 조직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의 이상은 노동자결사체를 통하여 임금노동사회를 극복하여 모든 이들이 노동의 주체가 되고, 능력과 필요에 따라 나누어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초기 사회적경제의 이상을 계승하여 결사체의 이념을 견지하고자 ‘사회적경제’가 아닌 ‘다른경제’를 택했다. 지금은 ‘다른’을 세워 ‘사회’와 ‘경제’를 새롭게 해야 할 시기이다.

『다른사람, 다른경제, 다른정치』

1. ‘사람 – 참나’, 내 안의 자본주의를 넘어

자본주의가 지배한 지 300년, 거짓 나, 이기적 개인주의 사상이 급속히 퍼졌다. 그것은 사회와 자연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여 배타적 자기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여긴다.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으며 사람과 자연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경쟁의 논리로 정당화한다.

자본주의는 생명의 길, 사람의 길, 진리의 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자칫 우리

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종말이 세상과 인류의 종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그만큼 치명적인 모순과 문제를 발생시키고 키워왔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본주의는 먼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지금 여기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이 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나로부터 분리하고 대상화한 뒤 그 어둠과 싸우려는 것은 도깨비와 씨름하는 것과 같다.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300년 자본주의 역사가 아직 해치지 못한 전체적 생명으로서 참나의 자리를 자각하고 나부터 너를 모시고 살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가능해진다.

남 탓, 세상 탓만 하게 되면 도리어 남과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자기다움을 잃고 자기소외, 자기 상실, 자기분열을 겪게 되고 자본주의 극복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른세상은 나와 내 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동심원을 그리며 나아가야 한다. 나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되 나 혼자 극복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너를 만나 우리가 되어 함께 저항과 건설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어가야 한다.

〈다른경제포럼〉의 ‘다른세상, 다른경제’는 다른 생명, 다른 사람이 만든다.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나로부터 시작한다. 그 시작은 다른 살림살이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2. ‘다른경제 – 자립’, 다른노동에서 시작하는 살림살이

“오래 전부터 인간은 다른노동을 추구하고 그들의 활동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결사하였다. 사회적연대의 경제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곳은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땅이다.”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긴 행진)

〈다른경제포럼〉은 다른세상, 다른경제가 다른 노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여긴다. 임금노동사회의 시작이래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전통, 마르크스와 그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나 ‘노동의 해방’과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래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때의 노동운동은 주로 노동조합운동으로 이해되어 왔다. 노동조합운동은 경제투쟁에 머물거나, 자본-임노동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위한 수단에 머무르면서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사회적 노동을 만들어 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확보 등의 고용보장, 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이 주요한 이슈였다. 현재의 노동의 문제는 첫째,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격차가 심해지는 것, 둘째, 노동 소외 및 예측, 셋째, 사회에 유용한 창조적 노동이 아니라 자본가의 맹목적 이윤추구에 동원되는 노동이라는 점에 있다.

〈다른경제포럼〉에서 말하는 다른노동이란 노동관계, 노동의 목적, 노동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실천의 방향으로 첫째, 협동조합, 자주관리기업을 통한 대안 노동을 활성화하고, 둘째, 기업내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며, 셋째, 모든 이에게 무조건적인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을 활성화하는 시민노동을 새롭게 발굴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노동과 노동관계를 재조직하는 것과 더불어 소비의 재조직을 통한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근본적 변화를 스스로 일구어가며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시장에 매몰되지 않는 호혜시장의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시장사회, 임금노동과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할 수 있는 물적토대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결사한 주체들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다른정치를 만들어갈 것이다.

3. ‘다른정치 – 자치’, 다른경제에 토대를 둔 이중권력 형성

“아무에게도 예측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형성할 때, 나는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오직 너와 만나 우리가 될 때에만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삶의 진리는 만남이요, 자유는 본질에서 사회적이다. 나의 자유는 그 만남의 공동체가 확장되는 만큼 넓어지고, 그 만남의 온전함만큼 온전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삶을 위해, 너와 내가 평등하게 만나 서로 주체로서 우리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활동이 바로 정치이다.” (진보신당 강령 전문 1장중에서)

〈다른경제포럼〉은 ‘다른세상, 다른경제’는 ‘다른노동’으로부터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여긴다. 다른노동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갈 것인가? <다른경제포럼>은 협동조합지역사회를 주창하는 레이들로 보고서를 주목한다.

- ①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②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은 노동자와 작업장간에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며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다.
- ③ 종래의 소협은 단지 자본주의 기업과 경쟁하는 것 이상의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독특하고 차별성 있는 사업체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조합원에게만 봉사하게 될 것이다.
- ④ 도시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마을을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종류의 협동조합 집합체를 만들어야 한다. (레이들로 보고서)

우리는 사회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비록 협동조합공화국을 말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자기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이러할 때 다른 운동의 영역을 존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이 개발된다. 실제 개별 협동조합이 사회전체의 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이것의 해결을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협동조합 내부의 노동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를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최근 논의가 활발해진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경영참여, 재벌구조 혁신 등의 문제의식이다.

다른노동에 기반한 다른정치의 주체형성 전략은 노동자결사체운동의 전통에 따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불안정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만남이다. 이 주체는 지역사회를 무대로 사회적경제운동의 전통을 복원하고 지역풀뿌리운동을 결합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을 유력한 살림살이 기반으로 삼아 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권력을 형성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선거용 정치가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상시적인 정치운동을 전개하자. 우리는 이를 이중권력운동이라고 부른다. 이중권력은 건강하고 대안적인 공동의 살림살이에 기반한다. 우리 살림살이의 기반이 없이는 자본의 정치에 종속되거나 공허한 구호만을 외치면서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것이다. 협동조합운동은 다른노동과 다른시장의 가능성을 현실에서 입증해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제기되는 정치적 의제와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민의 정치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렇게 민의 정치경제결사체운동을 확산시켜 마침내 다른세상,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평, 지역사회

만남포럼¹⁾

1. 지역사회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지역과 생활정치가 구체화되는 사회를 묶은 ‘지역사회’라는 것을 핵심적 사회운동의 지평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하다고 여겨진 지역사회는 현실에서는 웬지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 보이고 느껴지는 것은 시장이고 (지방)정부이다. 전국 어디나 ‘마을 만들기’라는 말이 유명

1) '만남포럼'은 '사회변혁, 자기성찰, 살림살이'를 키워드로 하여 연구와 실천활동의 만남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과 인간에 대한 성찰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사람의 살림을 돌보는 모임이 되고자 하는 연구자 및 현장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서로를 살피는 사람들의 결사체로 운영될 것을 희망하지만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하고 많은 새로운 만남을 추진하면서 향후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운동의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씽크탱크 조직으로서의 전망을 가진다. 만남포럼은 본 팜플렛의 취지 및 내용에 공감하여 공동제안자로서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팜플렛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론을 제공한다.

처럼 떠다니고 있지만 정작 마을을 보거나 경험한 사람은 흔치 않다.

초국적 금융자본과 대형유통자본이 할퀴고 간 지역, 중앙권력과 세계권력이 소외시킨 지역사회는, 그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그 맨얼굴을 마주하는 삶의 현장이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와 자연이 유사하다. 같은 길을 다니고 같은 상점을 이용하며, 같은 학교의 학생이거나 학부모이다. 그래서 지역사회는 원하든 그렇지 않든, 공유(共有)와 공유(公有)의 장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지역사회가 공유(共有, 公有)하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 시장은 공유(共有)를 화폐로 대체하며, 정부는 공유(公有)를 제도와 법률, 관료라는 이름으로 독점한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운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장에서 생존하라는 주문을 받고 있다. 지역풀뿌리운동은 재정난과 연동된 인력난에 허덕인다. 유일한 돌파구는 선거에 당선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공유(共有, 公有)의 주체인 민이 소외되고 지역사회는 실종되었다.

충분한 공유(共有), 함께 함이 없고서는 함께 누림으로써의 공유(公有)는 ‘공유지의 비극’을 겪거나, 혼자 누림의 사유(私有)에 정복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기적 개인간의 불신에 기초한 경쟁적 거래행위가 합리적 경제활동으로 여겨지는 자본주의 시장사회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삶의 과정을 함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이웃을 만날 때 상처받거나 손해 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만남을 꺼리기도 한다. 그리고 생존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바쁘며, 혹시 여유가 생기더라도 TV앞에 앉거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편이 속편하다고 여긴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2. 지역사회와 주민조직운동

자활공동체 사업과 사회적기업은 주로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역사회운동은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마을과 공동체에 기반하여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주민조직운동의 철학과 방법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파울로 프레이리의 민중교육철학과, S.D 알린스키의 당사자 중심의 주민조직방법론을 따르는 주민조직운동에 대한 정의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조직화된 힘으로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운동”이다.

주민조직운동의 정의는 근본적 지점에서 같은 철학과 방법론을 갖는다. 주민조직운동 정의에서 밝히듯이, ① 주민 주체 형성(주민의 자발적 참여), ② 주민조직화(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③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지역풀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운동)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결사체조직에 기반한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한다면 자기정체성에 맞는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반시장에서의 유통과 판매란 호혜시장 형성전략에서는 우애 관계형성이 되며, 주민조직운동에서는 의식화, 세력화, 인간화로 표현된다. 따라서 조직화는 호혜시장이라는 일반시장과 다른 성격의 사회적시장 구축을 목표로 하면서, 주체의 형성과 지역사회연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 지역사회연대는 전체적이고 포괄적 성격을 갖지만 시기적으로는 단기적 과제이며, 주체의 형성은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을 갖지만 장기적 과제이다. 주민주체들은 공동체 우애관계를 증진하면서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외 유통과 판매 등의 마케팅 분야는 별도의 전문적인 주체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시장과 호혜시장(사회적시장) 양측을 활용하며 기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풀뿌리사회적경제조직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라는 이중목적의 한방향정렬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때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다. 주민주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케팅 교육이 아니라 마을의 과제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들을 주체로 세우며 일할 수 있는 민주적 리더십을 키울 수 있게 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민 주체들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주민조직화운동의 기본관점이기에는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마을의 필요와 염원(시장경쟁력)으로부터 출발한 것인지, 소수 몇 사람의 기호와 주관적 의지인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다.

주민조직화 방법론의 핵심인 주민조직화 10단계는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사회적경제운동의 주민주체 조직화 과제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3.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노동이 사회화되었다는 것은 노동의 생산과 재생산의 조건을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는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과 인종에 따라 균열시키고, 시민과 계급을 끊임없이 분리하면서도 소비자로서 재구성하는 시장주의의 논리와 대결하지 않고서는 노동해방을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지

역사회는 바로 이러한 자본의 포섭과 통제, 회유와 그에 대한 순응과 크고 작은 갈등, 저항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각축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노동문제가 갖는 복합적인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계급, 성, 지역, 국가, 민족, 생태 문제 등은 각기 어느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중층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한국사회의 모순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계급 모순도 크게는 국가를 통해, 작게는 지역사회와 단위 사업장을 통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작동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노동운동의 개입전략, 김현우, 이상훈, 장원봉)

위 기조에 동의한 대전지역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2012년에 3개월간 지역사회 노동조합활동가 교육훈련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했다.

1. 주체형성의 관점

노동자결사체운동으로서의 노동조합, 협동조합, 공제조합운동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운동 전개.

2. 주체의 반성

자기성찰 부재, 노동/생활/정치의 고립 및 분리와 단절. 개인화, 파편화, 공리주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 중앙이라는 이름의 서울운동에 종속. 서울바라기, 중앙줄서기. 무기력하고 관성화되고 관료화되고 시민, 주민, 조합원 없는 지역운동. 특정정파와 명망가에 의한 분열과 해체의 가속화. 대중조직의 역량 저하. 자본의 하위파트너, 대기업 정규직의 배타적 이해 실현으로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라는 쌍둥이 운동의 쌍둥이 한계에 대한 반성.

3. 대안의 방향

나부터, 우리부터, 마을부터, 지역부터 세계로. 노동자결사체운동의 종합적, 통합적 복원. 좌파 정당의 기초로서 지역당에 준하는 지역활동가연대, 현장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불안정노동의 조직화 전략. 마을 거점 공동체 형성전략. 로컬푸드를 기초로한 교육, 문화 등 생활협동운동의 재조직. 호혜시장 운동의 전개. 지역화폐, 공제조합, 협동조합은행 등, 지역공동체 금융형성. 지역연대의 물리적 공간으로서 구(區)별 노동교육문화센터(노동자의 집) 설립. 지방권력 집권 10년 계획 수립.

4.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운동

1) 협동조합 지역사회

협동조합 지역의 핵심은 협동조합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야한다는 것과 개별협동조합, 특정 분야의 협동조합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을 자각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핵심경쟁력으로 하고 나아가 연합회 건설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필연적인 발전경로가 된다.

2) 호혜시장

무엇으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핵심은 시장이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에 입각하여 협동조합들은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호혜시장구축을 핵심 슬로건으로 세워야 할 것이다.

호혜시장은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동기로 화폐를 매개하여 상품을 교환하는 물신화된 경쟁 시장을 극복하고자 한다. 호혜시장이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람과 공동체의 만남을 통해 “주고, 받고, 되돌려 주는” 호혜와 증여의 시장이며 선의를 가진 자들의 이타적인 만남을 통해 존중받아야 할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해나가는 시장이며, 유무상통(有無相通,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통함)의 시장이다. 이 시장은 관계지향적인 시장인 만큼, 단지 거래를 넘어 정이 살아나며 노래와, 춤이 있으며 인간다움을 향한 기도와 성찰이 있는 시장이다.

3) 로컬푸드

호혜시장의 기본 나눔은 먹을거리가 그 출발이 된다. 먹을거리는 인류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공동체적이고 호혜적인 생산기반을 전제로 한다. 식구(食口)란 개인화된 하나의 가정(Family)이 아니라 함께 먹는 입으로서 공동체(Community)이다. 다시 이 먹을거리는 농업의 결과물이므로 인류생존의 필수요소이면서 그 자체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레이들로보고서에서는 협동조합 지역사회를 말하며 그 구체적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후 세계의 협동조합은 특히 세계의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영역은 인류에게 매우 필요한 분야로서 협동조합은 여기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치와 자립의 식량조달, 대자본으로부터의 방어라는 가치를 들어 먹을거리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조직해야 한다. 지역내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상호 독립적 결사체로서 인정함과 동시에 지역연합물류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연합 사업단을 구성하여 내식, 외식, 단체급식 분야에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특히 식생활습관의 변화를 읽어 다양한 가공영역에 진출해야 하며 문화적인 운동으로 확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로컬푸드, 얼굴있는 가까운 먹을거리 운동이라고 한다.

4) 마을협동조합

협동조합운동의 핵심은 소비자란 이름의 지역주민을 ‘조합원’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소비자이기만 한 인간존재는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역주민은 ‘고객’ 혹은 ‘소비자’로 호출되어 자본의 대량생산 시스템의 생산물 소비를 강요당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것은 얼굴이 보이고 인간적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투자자소유기업의 임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마을안에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함께 협동조합으로 생산하고 부족한 것은 이웃마음과 나눌 수 있는 상시적 구조를 만들어간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안으로 자급과 자립, 자치를 지향한다.

그 출발은 마을협동조합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나 캐나다의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과 같이 복합적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 관계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조직이다. 마을협동조합은 우리의 전통 협동모델로는 품앗이, 두레, 계를 동시에 해나가는 조직이다. 품앗이는 1:1 노동력 교환은 물론 다자간 품앗이를 가능하게 하는 레츠(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나 유럽연합차원에서 진행중인 감가하는 환전 지역화폐 모델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순환하는 호혜적인 나눔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레는 공동작업장으로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이 해당될 것이며 계는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공제조합, 소액서민대출(Microcredit)을 통해 금융자본의 폐해를 극복한다. 이렇게 마을단위, 풀뿌리 차원의 협동조직이 살아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재계획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살아날

것이고 이는 다시 개별 조직들의 생명력이 강화될 것이다.

5)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경험적 근거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이탈리아 볼로냐와 트렌토, 몬드라곤 공동체, 캐나다 퀘벡의 데자르맹, 그 외 서구유럽의 협동조합 지역사회 모델들이 소개되고 있다. 한국에도 홍성의 풀무공동체, 원주의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공동체, 그리고 지역화폐와 농업생산자, 의료생협, 자영업자들이 결합된 대전의 사례가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된다. 첫째, 지속적인 활동가를 배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학교가 있다는 점, 둘째, 단지 소비자조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생산물의 생산부터 서비스분야까지 생산의 전 영역에 걸쳐 건설한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점, 셋째, 먹을거리를 기본으로 다룬다는 점, 넷째, 대안적인 금융기관이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이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지역언론 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향후 협동조합 지역사회라는 꿈을 실현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지점이라고 본다.

6) 협동조합 지역사회의 과제

한편, 협동조합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몇가지 과제가 있다. 첫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이다. 노동자운동은 노동조합과 더불어 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할 때 사회의 주역으로써 자기사명을 완성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운동이 노동자운동의 기반이 되었는데, 한국의 굴절된 근현대사가 그것을

방해해온 결과로 한국의 협동조합 생태계가 유럽의 그것과 질적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둘째, 노동조합, 협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의 살림살이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운동의 발전경로상 자기 분야로 집중하고 분열해가는 것 역시 필요하나 이것은 다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공통된 지향을 통해 통일되어야 한다. 자기조직의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전략이 우리에게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떻게 연대하고 협동해갈 것인지를 논의하고 정하여 가능한 것부터 공동행보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여 건강과 복지에 대한 요구가 중대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비용을 감당해내는 사업체인 의료생협, 혹은 의료복지협동조합을 지역별로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격으로 현재의 의료생협을 지역사회 협동조합간 협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정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의 ‘공직선거 관여금지’ 조항은 특정인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정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협동조합은 자신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치적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생산하여 정치인과 정당의 협력을 구하거나 때로 압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협동조합 기본법의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는 금융이나 공제사업 분야의 진출이 제한된 것은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향후 이를 극복해가야 할 것이다.

〈다른경제포럼〉의 설립경과

1. 2010년 11월 ~ 12월

- 진보신당 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으나, 당 내에서 이 영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의제가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낌
- 또한 활동가들간의 교류가 없어 정치적 지향을 가진 사회적경제운동의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필요성을 느낌

2. 2011년 1월 ~ 6월

-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영역이라고 여겨지는 사회적기업, 자활, 지역통화, 로컬푸드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먹거리, 보건의료 등의 분야와 사회적경제의 관계 등 사례들을 이해하는 자리를 가짐

- 그러나 관점이 부재한 사례의 이해는 공동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기본적인 관점 및 방향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음

3. 2011년 7월 ~ 2012년 6월

-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운동을 한다는 것의 핵심을 사회적경제를 조직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영역에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수립하였음
- 이를 위하여 사상적, 철학적 측면과 사회변혁의 측면에서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변혁사상 및 변혁운동주체와 사회적경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그러나 추상적인 사상보다는 현장활동가들의 실천경험 속에서 그 의미 및 성찰의 지점을 찾아야 함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활동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노력하였음
- 다른 한편, 진보신당의 분화 및 정당활동가들의 이합집산의 과정을 겪고, 진보의 재구성 등의 화두가 등장하면서 사회적경제활동의 관점 및 방향정립이 진보의 재구성 혹은 진보정당의 재구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함. 이에 따라 모임의 구성을 특정정당 소속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목적에 동의하는 사회적경제활동가들의 네트워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4. 2012년 7월 ~ 2012년 12월

- 사회적경제를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전망 속에서 사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경제의 철학 및 사상적 토대를 세울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활동가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고, 공동의 인식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학습의 결과 기존의 조직중심, 경제중심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운동을 하기 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다른경제'라는 이름으로 정체성을 갖고자 결의함. 이를 위해서는 느슨하고 무책임한 네트워크가 아닌 결사체로서 움직여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조직체계 및 운영방침을 정립함

5. 2013년 1월 ~ 현재

- 학습 후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운동으로서 사회적경제의 관점 및 방향을 제시하며 이에 동의하는 실천활동가를 조직하기로 결정. 이를 위하여 팜플렛을 작성하여 배포하면서 다른경제포럼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동의하는 이들을 조직하여 현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짜기 위한 중장기적인 워크숍 및 토론회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음

국부론, 아담 스미스
 공산당선언, 칼 마르크스
 포이어하흐에 관한 테제, 칼 마르크스
 동경대전, 최제우
 증여론, 마르셀모스
 우애의 경제학, 카가와 도요히코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
 정치의 약속, 한나 아렌트
 프롤레타리아여 안녕, 앙드레 고르
 NAM, 가라타니 고진
 남강 이승훈, 김기석
 다석 유영모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함석헌
 나락한알속의 우주

한살림선언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박재순
 씨름사상, 씨름누리, 씨알재단
 신자유주의의 탄생, 장석준
 민주주의에 반하다, 하승우
 다른경제, 김신양 편역
 녹색평론선집
 가장 인간적인 의료, 임종한외
 사회적경제운동과 지역사회운동의 접점찾기, 만남포럼
 사회란 무엇인가, 김성은
 서기 2000년의 협동조합(레이들로보고서), A. F. 레이들로

 사회적경제의 이상과 현실,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김신양
 사회적경제의 이론과 실제, 장원봉
 사회적경제의 이해, 엄형식
 호혜시장은 부활하고 있다, 김성훈

다
른
경
제
포
럼